

학령기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및 외로움

문소현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Relationship of Peer Relationship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Self-reported Attachment Security, to Loneliness in Uppe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Moon, So-Hyu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peer relationships, self-reported attachment security,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loneliness in uppe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7 students in grades 5 or 6,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with the SPSS/PC 12.0 program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oneliness between the upper 25% and lower 25% groups of peer relationship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self-reported attachment securit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affection-hostility in parental rearing attitudes, validation and conflict in peer relationships, and attachment security explained 39.6% of the total variance in loneliness. **Conclusion:**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loneliness in uppe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a ne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to prevent and manage children's loneliness.

Key words: Peer relationship, Parental rearing attitude, Attachment security, Lonelines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외로움은 특정 형태의 관계부족으로 나타나며 친밀한 애착관계나 의미 있는 우정, 사회적 관계의 부족에서 생기는 감정으로 (Kim, 1997; Kim & Baik, 2003; Kim & Song, 2001), 발달주기에 따라 외로움과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됨에 따라 현재 성인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로서도 인식되고 있다(Kim, 1999; Krause-Parello, 2008).

아동의 외로움은 다른 부적응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으로

하여금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하게 만들어 올바른 아동성장과 발달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빈약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아동기를 보내게 되면 성인기에 부적응 행동, 반사회적 행동, 정신병적 증상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Park, 2003). 이렇듯 아동의 현재 적응이나 미래의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래 관계는 아동기 사회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외로움을 포함한 아동의 정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in, 2007). 특히 학령전기에 비해 학령기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극적으로 넓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아

주요어 :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oon, So-Hyun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252 Daeho-dong, Naju 520-714, Korea
Tel: 82-61-330-3587 Fax: 82-61-330-3580 E-mail: bonjourmsh@dsu.ac.kr

투고일 : 2008년 9월 12일 심사회의일 : 2008년 9월 2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5월 28일

동들의 과제는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래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또래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Buhrmester & Furman, 1987). Asher와 Wheeler (1985)는 또래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동일수록 또래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아동들보다 더 큰 외로움을 표현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고립과 주관적 외로움은 또래의 배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Berlin, Cassidy와 Belsky (1995)는 초기 아동기에 가장 외롭다고 보고한 아동은 이전에 영아기동안 불안정 양가 애착관계로 분류되었던 아동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자녀 관계 또한 외로움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일반화되고 있지만 아동의 외로움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외로움을 개인의 내적인 정서로만 강조하여 가족이라는 일차적 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최근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Song, 2007). Hay, Payne와 Chadwick (2004)은 엄마의 온정은 아동의 낮은 외로움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령기 후기 아동은 또래관계를 중요시하고 또래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부모에게 애착대상에 대한 행동과 상호작용은 줄어들더라도 부모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며(Dwyer, 2005), 외로움은 개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관계의 질이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서이므로, 아동이 애착 대상에 대하여 형성한 내적 작동모델이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Kim, 2006). Allen, Moore, Kuperminc와 Bell (1998)은 부모에 대한 애착은 외로움이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 외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 가정형태, 외모만족 여부, 형제 친밀감, 자아존중감 등이 포함된다(Doh, 1999; Kim & Song, 2001; Yang, 1993).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동의 외로움은 부모의 관계와 교우관계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아동의 가족 경험과 또래 상호관계속에서 연구되어야 하지만, 외로움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들은 외로움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개인의 인성 특성이나 정서 및 행동 특성 등에 관심을 갖고 외로움을 주로 개인적 특성과 관련지어 연구하였으며(Song, 2007), 국내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또래관계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Kim, 2001). 또한 비록 기존연구에서 가족적 맥락과 사회적 대인관계를 고려하여 외로움과 양육태도, 애

착, 그리고 또래관계의 변수와의 관련성에서 독립적인 연관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아동의 외로움에 이르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최근에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더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Rohner & Pettenigill, 1985), 애착불안정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부전은 횡단적이기보다 발달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발현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영아 및 초기 아동기에 비해 중, 후기 아동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Dwyer,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로움 경험의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간의 관계와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외로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 관련 건강교육과 상담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간의 관계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B구에 소재한 M초등학교와 J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령기 후기 아동들로 유의표집하였으며, M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전수와 J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5,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인 .15, 검정력($1-\beta$)은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03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M초등학교 108명, J초등학교 99명으로 총 207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또래 관계

Ladd, Kochenderfer와 Coleman (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우정지각 질문지를 Lee (2001)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상호 간의 도움정도를 묻는 5문항, 상호 간의 배타성 정도를 묻는 3문항과, 상호 간의 인정 및 수용정도를 묻는 3문항, 상호 간의 마음을 터놓는 자기표현 4문항, 상호 간의 의견 불일치 정도를 묻는 갈등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범위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9였고, 각 하위영역별 도움, 배타성, 인정, 자기표현, 갈등의 신뢰도 Cronbach's α =.72, .71, .61, .63, .56, .79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0이었고,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 =.85, .80, .76, .79, .71이었다.

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Oh와 Lee (1982)가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검사지는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 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4개 영역이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0문항으로 각 문항의 응답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의 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즉,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Oh와 Lee (198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0였고, 각

하위영역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신뢰도 Cronbach's α =.70, .66, .68, .74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7이었고, 각 하위요목별 신뢰도 Cronbach's α =.75, .67, .64, .77이었다.

3) 애착 안정성

Kerns, Kepac과 Cole (1996)이 제작한 '애착 안정성 척도' (The Security Scale)를 Park (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중기 아동기부터 청소년 초기까지 부모-자녀관계에서 지각하는 안정감을 평가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의존성 척도와 가용성 척도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아동이 애착 대상자를 가용하고 반응적인 존재로 믿는지를 측정하고, 둘째, 아동이 위기 상황에서 애착 대상자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평가하며, 셋째, 애착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데 편안함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15점에서 60점까지이며 안정성의 연속적인 차원에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을 의미한다. Park (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0이었다.

4) 외로움

Asher와 Wheeler (1985)가 개발한 아동의 외로움 질문지 (Children's Loneliness Questionnaire, LCQ)를 Kim (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과 또래 관계에서 아동 자신의 주관적 평가와 사회적 적응 및 부적응을 묻는 내용들로 구성된 16개 주요 문항과 아동의 취미나 선호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 8개의 항목을 포함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수적인 8개의 항목은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감정표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돕기 위해 첨가된 항목으로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 역계산하였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16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Kim (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2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G광역시 B구에 소재한 M초등학교, J초등학교에 본 연구자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기재요령을 구두로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250부를 배부하여 238부(95.2%)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7부(87.0%)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 분석은 t-test를 이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외로움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분포는 M초등학교 108명, J초등학교 99명으로 5학년 54.6% (113명), 6학년 45.4% (94명)이었고, 성별 분포는 남학생 47.3% (98명), 여학생 52.7% (109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10.9세(10-13세)였으며, 평균 체중은 42.3 kg (21-80 kg), 평균 신장은 149.7 cm (130-168 cm)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나 기술직이 43.5% (90명), 자영업이 31.4% (65명), 전문직이 9.2% (19명), 기타 15.9% (33명)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35.2% (73명), 전일제가 46.9% (97명), 부분제가 17.9% (37명)이었다. 아버지와 동거 형태는 별거나 이혼이 5.3% (11명), 사망이 2.4% (5명)이었으며, 어머니와 동거형태는 별거나 이혼이 1.9% (4명), 사망이 1.0%

(2명)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또래관계 정도는 평균 64.60점이었고, 구체적으로 하위영역별 도움 정도는 평균 16.96점, 배타성 정도는 평균 8.42점, 인정 정도는 평균 8.77점, 자기표현 정도는 11.93 점, 갈등 정도는 평균 18.95점이었으며, 부모 양육태도는 평균 145.92점이었으며, 구체적으로 하위영역별 애정-적대정도는 평균 38.33점, 자율-통제정도는 평균 32.85점, 성취-비성취정도는 평균 37.64점, 합리-비합리정도는 평균 37.10점이었다. 애착안정성 정도는 평균 28.60점이었으며, 외로움 정도는 평균 35.87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독립변수 척도의 점수를 상위 25%와 하위 25%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점수에서 상, 하위 25%에 속하는 대상자의 외로움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7)

| Variables | Category | n (%) | M (SD) | Range |
|--------------------------|-------------------------|------------|--------------|---------|
| Grade | Fifth | 113 (54.6) | | |
| | Sixth | 94 (45.4) | | |
| Gender | Male | 98 (47.3) | | |
| | Female | 109 (52.7) | | |
| Age | | | 10.9 (0.75) | 10-13 |
| Weight | | | 42.3 (9.06) | 21-80 |
| Height | | | 149.7 (6.65) | 130-168 |
| Father's job | Office work or engineer | 90 (43.5) | | |
| | Professional work | 65 (31.4) | | |
| | Self-employed | 19 (9.2) | | |
| | Others | 33 (15.9) | | |
| Mother's job | No | 73 (35.2) | | |
| | Part time | 97 (46.9) | | |
| | Full time | 37 (17.9) | | |
| Cohabitation with father | Cohabiting | 191 (92.3) | | |
| | Not cohabiting | 16 (7.7) | | |
| Cohabitation with mother | Cohabiting | 201 (97.1) | | |
| | Not cohabiting | 6 (2.9) | | |

Table 2. Level of Loneliness, Peer Relationships, Parental Rearing Attitudes, Attachment Security

| Variables | Range | M (SD) |
|-------------------------------|--------|----------------|
| Loneliness | 24-68 | 35.87 (7.86) |
| Peer relationships | 27-97 | 64.60 (14.20) |
| Aid | 5-25 | 16.96 (5.01) |
| Exclusivity | 3-15 | 8.42 (2.84) |
| Validation | 3-15 | 8.77 (2.83) |
| Disclosure of negative affect | 4-20 | 11.93 (4.17) |
| Conflict | 5-25 | 18.95 (3.82) |
| Parental rearing attitudes | 95-186 | 145.92 (17.36) |
| Affection-hostility | 15-50 | 38.33 (5.75) |
| Autonomy-controlling | 21-44 | 32.85 (4.15) |
| Fulfilling-non-fulfilling | 25-50 | 37.64 (5.14) |
| Rationale/irrational | 17-50 | 37.10 (6.50) |
| Attachment security | 15-58 | 28.60 (6.97) |

Table 3. Difference in Mean Scores for Loneliness by the Level of Peer Relationships,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Attachment Security (N=207)

| Variables | Category | n | Loneliness | | |
|----------------------------|-----------|----|---------------|-------|------|
| | | | M (SD) | t | p |
| Peer relationships | Lower 25% | 51 | 40.78 (9.977) | 5.173 | .000 |
| | Upper 25% | 50 | 32.38 (5.753) | | |
| Parental rearing attitudes | Lower 25% | 54 | 40.85 (9.557) | 6.475 | .000 |
| | Upper 25% | 55 | 31.75 (4.142) | | |
| Attachment security | Lower 25% | 58 | 31.62 (4.299) | 6.156 | .000 |
| | Upper 25% | 61 | 39.69 (9.056) | | |

4. 대상자의 애착안정성, 부모 양육태도, 또래관계, 외로움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외로움과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로움은 애착안정성($r=-.43, p=.000$), 부모양육태도($r=-.45, p=.000$), 또래관계($r=-.46, p=.000$)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래관계의 도움($r=-.41, p=.000$), 배타성($r=-.37, p=.000$), 인정($r=-.46, p=.000$), 자기표현($r=-.18, p=.000$), 갈등($r=-.43, p=.000$)의 하위영역과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인 애정-적대($r=-.54, p=.000$), 자율-통제($r=-.15, p=.000$), 성취-비성취($r=-.29, p=.000$), 합리-비합리($r=-.41, p=.000$)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도움, 배타성, 인정, 자기표현, 갈등과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인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

Table 4.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 Variables | Loneliness | |
|-------------------------------|------------|------|
| | r | p |
| Peer relationships | -.46 | .000 |
| Aid | -.41 | .000 |
| Exclusivity | -.37 | .000 |
| Validation | -.46 | .000 |
| Disclosure of negative affect | -.18 | .012 |
| Conflict | -.43 | .000 |
| Parental rearing attitudes | -.45 | .000 |
| Affection-hostility | -.54 | .000 |
| Autonomy-controlling | -.15 | .035 |
| Fulfilling-non-fulfilling | -.29 | .000 |
| Rationale/irrational | -.41 | .000 |
| Attachment security | -.43 | .000 |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for Loneliness (N=207)

| Variables | β | t (p) | R ² | F | p |
|----------------------------|---------|--------------|----------------|-------|------|
| Parental rearing attitudes | | | | 29.81 | .000 |
| Affection-hostility | -.272 | -3.34 (.001) | .282 | | |
| Peer relationships | | | | | |
| Validation | -.265 | -4.06 (.000) | .363 | | |
| Conflict | -.155 | -2.36 (.020) | .383 | | |
| Attachment security | -.151 | 2.00 (.047) | .396 | | |

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및 애착안정성을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외로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로는 양육태도의 애정-적대(28.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또래관계에서 인정, 갈등의 하위 영역 그리고 애착안정성이 외로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대상자의 외로움을 39.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아동기 외로움은 사회 발달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서상태로(Krause-Parello, 2008) 지속되는 정서적 스트레스이지만 종종 잘못 이해되거나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 정도를 확인하고,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 5, 6학년의 외로움 정도는 평균 35.87점이었고, 5학년의 외로움 정도는 평균 35.50점이었다. 이는 보통 수준 이하의 점수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구 소재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Park (2003)이 보고한 외로움 평균점수 31.68보다 약간 높은 점수였고, 5, 6학년의 외로움 평균 점수를 33.13점으로 보고한 Kim (2006)의 연구보다 높게 나왔다. 물론

본 연구와 선행연구는(Kim, 2006; Park, 2003) 일부 지역의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표집으로 단순 비교는 신중해야 하나 아동기에서 외로움 정도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로움의 예측요인으로 또래관계 정도는 평균 64.60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였으며, 상호 간의 의존불일치 정도가 평균 18.95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 간의 도움 정도 역시 평균 16.96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이었다. 반면 애착안정성은 28.60점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환경이 가정에서 학교로 확장되면서 또래관계를 중요시하고 또래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의 느낌에 의한 영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는 하위영역별 애정-적대의 평균 점수가 38.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여 애정-적대의 평균점수가 39.96점으로 가장 높게 보고한 Tak (2005)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대상자가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인 방향으로 부모 양육태도를 지각할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외로움 척도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와 외로움 간의 관련성 연구에서 Shin (2007)은 만족스런 우정을 형성하지 못할수록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였고, 또래로부터 고립되면서 아동들은 외로움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불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대인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Rubin & Ross, 199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로움 간의 관련성 연구를 보면 엄마와 아빠의 수용이 아동의 외로움을 감소시켰고, 아빠의 병리적 통제성은 외로움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하였다(Richaud de Minzi, 2006). 국내연구에서 Kim (2001)은 부모의 사랑-수용 정도에 따라 외로움의 평균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였고, Lee (2001)는 본 연구와 동일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이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각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성취적일수록 아동의 외로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외로움이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정적인 부모는 또래관계에서 협조적이며, 친사회적인 자녀를 둔 반면, 애정적이지 않은 부모는 공격적이고 불순종적인 자녀를 두었다는 연구(Radke-Yarrow, Richters, & Wilson, 1988)를 통해서도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외로움 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또래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외로움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통해 교우관계의 질과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되며, 아동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Kerns와 Stevens (1996)은 부모 특히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보고한 아동들은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지적하였고, Liberman, Doyle과 Markiewicz (1999)은 안정적인 애착은 친밀한 우정을 맺게 해주며 갈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아동일수록 또래 관계에서 수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모와 애착의 안정성이 높은 아동이 외로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 예측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외로움은 또래관계, 부모양육태도, 애착안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도움, 인정, 갈등이 배타성, 자기표현보다 외로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 양육태도 하위영역은 애정-적대, 합리-비합리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보다 외로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관관계가 높은 부모 양육태도 하위영역의 애정-적대와 또래 관계 하위 영역인 인정, 갈등은 대상자의 외로움 예측요인의 주요한 변수로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외로움을 설명하는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에 대해서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외로움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인 애정-적대로 외로움을 28.2% 설명하였고, 그 다음으로 또래관계에서 인정, 갈등의 하위 영역 그리고 애착안정성 등 4가지 변수가 외로움을 39.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h (1996)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성 및 통제성 등의 4가지 양육행동 변인들 중에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온정적일수록 외로움이 낮은 반면, 부모의 통제성은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im (2001)의 연구에서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분위기, 부모의 사랑 수용으로 외로움 변수의 변량 가운데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분위기와 부모의 사랑 수용이 외로움에 유의한 순효과를 가지고 있고 외로움과 부적의 관계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족분위기가 좋고 부모의 사랑-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외로움의 지각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용, 온정의 개념과 동일한 부모 양육태도의 애정-적대가 아동의 외로움을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또한 아동의 또래지위로서 아동이 지각하는 인기정도나 친구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고립정도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Kim & Song, 2001)와, Shin (2007)의 한국 초등학교 5, 6학년의 또래관계, 사회행동, 학업수행능력, 외로움 간의 관계 연구 결과 또래수용, 친구 수, 우정의 질이 외로움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난 결과는 친구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이가 잘 받아들여지는 아이보다 더 큰 외로움을 표현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상호 간의 인정 및 수용정도와 의견 불일치의 갈등이 아동의 외로움을 유의하게 예측한 요인으로 확인된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며, 아동기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 연구결과와 함께 본 연구 결과는 외로움이 개인 내 심리적 구조의 기능이지만 결국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에게 있어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초기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가족적 맥락을 고려하고,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후기의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부모로부터 또래로 이전되는 시기임을 참조하여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간 호 중재 개발 시 또래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 207명을 대상으로 학령기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외로움 간의 관계와 외로움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외로움은 또래관계, 부모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상위 25%그룹이 하위 25%그룹보다 외로움 점수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외로움과 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상자가 지각한 또래관계, 부모양육태도, 애착안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는 변수는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인 애정-적대, 또래관계에서 인정, 갈등의 하위 영역 그리고 애착안정성 등 4가지 변수가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기에 간과되고 있는 다른 건강문제의 위험요인인 외로움을 측정하고 외로움 관련 요인으로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또래 못지않게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같은 가족 환경 요인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적 맥락에서 중요한 개념인 또래관계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족환경 요인과 외로움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가족과 학교 환경 내에서 아동기 외로움에 대한 예방 및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서 애착안정성, 양육태도, 또래관계 등 심리환경적 변인의 일부를 다루었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아동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 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탐색을 시도해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llen, J. P., Moore, C., Kuperminc, G., & Bell, K.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1406-1419.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Berlin, L. J., Cassidy, J., & Belsky, J. (1995). Loneliness in young children and infant-mother attachment: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1*, 91-103.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Doh, H. S. (1996). Children's loneliness an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6), 1-11.
- Dwyer, K. M. (2005).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attachment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Human Development, 48*, 155-182.
- Hay, D. F., Payne, A., & Chadwick, A. (2004). Peer relations in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 84-108.
- Kerns, K. A.,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3), 23-49.
- Kim, J. 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security, self-esteem, and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O. S. (1997).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 871-879.
- Kim, O. S. (1999). Alcohol drinking, smoking, and health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 107-116.
- Kim, O. S., & Baik, S. H.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loneliness,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in elderly Koreans. *Jour-*

- 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 425-432.
- Kim, S. H., & Song, S. (2001). A study on the loneliness of childhood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6), 77-93.
- Kim, S. Y. (2001). *The Effect of Sociodrama on the Children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rause-Parello, C. A. (2008). Loneliness in the school setting.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Nurses*, 24(2), 66-70.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ee, H. S. (2001). *The impact of peer relationship on child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nam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Graduate School, Daejeon.
- Liberman, M., Doyle, A. B., & Markiewicz, D. (1999). Developmental patterns in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 201-213.
- Oh, S. S., & Lee, J. S. (1982).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and definitional characteristics on parental rearing attitude*. Seoul: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
- Park, E. J. (2003).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efficacy,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 Park, H. J. (2001). *Effects of attachment security and self-image on depression in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Radke-Yarrow, M., Richters, J., & Wilson, W. E. (1988). Child development in network of relationship. In R.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mutual influen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ud de Minzi, M. C. (2006).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The relationship to attachment and parental styl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7, 189-210.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ubin, K. H., & Ross, H. S. (1990).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in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n, Y. L. (2007). Peer relationships, social behaviors, academic performance and loneliness in Korean primary school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8, 220-236.
- Song, M. H. (2007). *Effects of Parent's love versus hostility child-rearing attitude on the juvenile's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Tak, K. S. (2005). *A study on parental rearing patterns and stres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Yang, K. M. (1993). *The link between body-esteem and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